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465-475
<https://doi.org/10.29212/mh.2023..128.46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관기] 2023년 제1차 군사사연구포럼을 다녀와서

- 2023년 제1차 군사사연구포럼
: 근대 동아시아의 병력충원 -

장성환*

1.

최근 역사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연구 주제가 다양해짐과 함께 연구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역사학의 연구 대상은 과거의 것에 한정된 만큼 연구성과가 누적되고 연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현대사의 경우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는 등 ‘나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료만 가지고 연구를 할 수는 없으며, 기존의 사료와 함께 적절한 사료 비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사료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박사수료

취사(取捨) 선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료를 활용하느냐와 더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비판하느냐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한국 근현대사 중에서 ‘일제 식민지 말기의 국가 총동원체제와 강제동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분야는 국내외에서 새로운 사료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 역시 계속해서 등장하여 연구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학은 물론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콘텐츠가 생산됨에 따라 활발한 역사 소비가 진행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많은 운동가, 활동가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현재의 정치·사회적 이슈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 필자는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사료를 읽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답답함은 내가 연구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외로움은 비슷한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중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관련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포럼을 통해 현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전쟁기념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전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를 관람하고 포럼에 참석한다면 현재 찾고 있는 답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2.

지난 6월 28일(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2023년 제1차 군사사 연구포럼 : 근대 동아시아의 병력 충원>은 필자의 주된 관심사가 포함된 포럼이었다. 관심사에 대해 전사(前史)의 성격을 가진 부분은 물론 관련 제도의 변화과정 및 용어의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되었다.

제1회 군사사 연구포럼의 발표 주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23년 제1차 군사사연구포럼 주제 및 발표·토론자

주제	발표자	토론자
근대 한국의 신식 군대 병력 확보의 추이와 징병제	유바다 (고려대학교)	심철기 (민족문제연구소)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조선파병과 인력·물자동원	조재곤 (서강대학교)	박완 (한양대학교)
抗戰 후기의 지식청년종군운동	김영신 (원광대학교)	김지훈 (성균관대학교)
중일전쟁 발발 직전, 만주 지역의 치안숙정과 군비강화	유지아 (원광대학교)	조건 (동북아 역사재단)
전사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병력동원 - 징병제도를 중심으로	김상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안재익 (순천대학교)

첫 번째로 유바다(고려대학교)가 「근대 한국의 신식 군대 병력 확보의 추이와 징병제」라는 주제로 19세기 말 조선에서의 병력 충원 과정과 징병제 도입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이 군사제도를 변화시킨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군사제도와 편제의 변화에 따른 병력의 수급과정을 통해 열강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조선사회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눈길 이 간 부분은 대한제국의 징병제 도입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당시 징병제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징병 조례가 반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국민주권주의’를 언급한 발표자의 지적은 징병(徵兵)과 징용(徵用)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징(徵)’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던 필자에게 많은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총동원체제기의 사료를 보다 보면 징병 또는 징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논문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 1〉 발표하는 유바다(고려대) 교수



두 번째 발표는 조재곤(서강대학교)의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조선파병과 인력·물자동원」으로 이 발표를 통해 청일전쟁 시기 일본의 조선 파병과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과 물자의 동원, 이에 따른 조선의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시기 처음으로 징발령을 외국에서 시행한 부분이나, 비협조적인 지방관을 교체하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했다는 부분은 당시 일본이 갖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의 동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선인을 사실상 강제로 동원하여 전쟁 수행을 위한 인부(人夫)로 활용하였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청일전쟁 시기 일본인의 조선관(朝鮮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면서, 총동원체제기 조선인의 동원에 대한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사진 2〉 발표하는 조재곤(서강대) 교수



세 번째 발표는 김영신(원광대학교)의 「抗戰 후기의 지식청년 중군운동」으로 중일전쟁 시기 중국 지식 청년들의 중군운동과

중국국민혁명군의 병력충원 방식을 다루었다. 중일전쟁 시기 중국국민혁명군의 병력충원 방식 중 하나였던 청년들의 종군운동은 익숙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활동과 병력충원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식 청년 종군운동이 전통적인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사진 3〉 발표하는 김영신(원광대) 교수



위의 세 주제에 대한 발표는 필자가 관심 가지고 있던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사(前史)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었다. 시기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였지만, 역사 용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총동원체제라는 것이 어느 순간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으며, 이전 시기의 정책과 적절한 단속(斷續)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위 세 가지의 발표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 유익한 연구였다.

네 번째 발표는 유지아(원광대학교)의 「중일전쟁 발발 직전, 만주 지역의 치안숙정과 군비강화」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만주국에 대한 치안과 군비를 강화하여 전쟁을 준비하였는데, 중일전쟁 발발 직전 치안숙정 작업을 통해 만주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치안숙정 작업 속에는 국민생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국보다 일본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즉 사상통제와 같은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만주국에서 지속적인 군비 정비를 통하여, 재빨리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갔다.

이 논문을 통해서 중일전쟁 개전 직전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만주국군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총력전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총력전을 위한 일본군의 사상공작과 함께 치안숙정 계획의 의미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진 4〉 발표하는 유지아(원광대) 교수



마지막 발표는 김상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병력동원-징병제도를 중심으로」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징병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조선인의 병력 동원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와 함께 징(徵)이 가진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행실태와 함께 당시 징병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인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필자의 관심사와 시대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료와 선행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사진 5〉 발표하는 김상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된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징병제에 관한 토론 부분에서는 ‘징(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인부(人夫) 동원의 문제도 강제동원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나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 부분

이었다. 그 외에 다양한 질의응답은 앞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특히 국가총동원체제 및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있다 보니, 자주 접하게 된 일본 자료 및 논문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일본식 용어나 표현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

〈사진 6〉 종합토론 모습



3.

대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학회에 자주 나가라는 이야기였다. 발표하지 않더라도 학회 참석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들었지만, 실상은 바쁘다, 혹은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학회에 나간 적은 거의 없었고, 막상 나갔다고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다양한 연구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학회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간 학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오늘 좋은 발표 들었어’라는 자기만족에 가득 차 있던 것이 과거 나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기회를 나 스스로 놓치게 되었고,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때, 학회에 자주 나가고, 연구자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에 입학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거의 모든 학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가능한 자주 참석하였고,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도 나의 관심사를 쫓아 많은 학회와 공개강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필자가 실로 오랜만에 첫 발표부터 마지막 발표, 그리고 만찬까지 모든 과정을 참석한 학술의 장이었다. 다양한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대화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조용히 앉아있었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학술회의는 최신 연구 동향 및 당시의 이슈와 관련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관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대학원생은 공부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사료를 해석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모를 때가 있고, 선택한 연구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교수님의 지도와 함께 공부하는 선후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